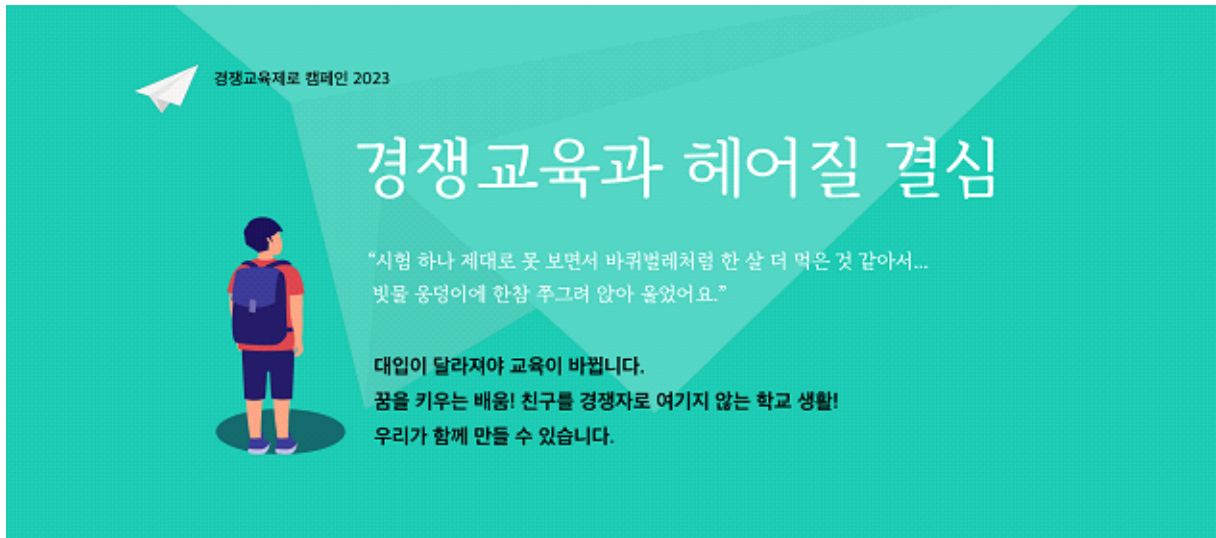




■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지자체·학교 입시 설명회 비판보도(2023.08.30.)

##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조장하는 학교 지차제 입시 설명회 여전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입시 설명회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63건으로 파악됨.

▲ 이러한 실태는 공교육 내 입시 컨설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2023.6.)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공공 영역에서 사교육 소비를 조장하는 행태가 횡행함을 시사함.

▲ 지역별로 개최 건수를 비교했을 때, 서울 28건, 경기 10건임에 비해 이외 지역은 3건 이하로 나타나 사교육 인프라가 발달한 수도권에서 더욱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경향성을 보임.

▲ 교육부는 2016년과 2019년에 사교육 강사 초빙을 지양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대표강사를 활용하라고 권장한 바 있음. 그러나 2023년 현재, 대교협에는 별도의 대표강사단을 조직하고 있지 않고 상담교사단 정도만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교육부의 지침이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는 지자체나 학교에서 수요자의 요구나 업무의 편의상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관행이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함.

▲ 공공 영역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국민의 혈세로 사교육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교육의 유입 창구를 열어줌으로써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사교육 조장행위임.

▲ 따라서 △교육부는 사교육 연사 초빙 지자체/학교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강력한 금지 조치를 내려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대교협은 공공 영역의 입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대표강사단 인력풀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학교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강사단 지원 체계와 이용 지침을 마련 △교육부는 기존 시행되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최근 사교육과 공교육의 유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5년간 5,000만 원 이상 제공받은 사례는 총 45명에 달했고, 킬러문항을 팔아 5억까지 챙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교육이 공교육으로 침투되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공정한 입시체계 구축’을 위해 공교육 내 입시컨설팅을 강화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공교육으로 입시 컨설팅 수요가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교사 중심 무료 대입상담 및 고교-대학 정보공유 확대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림1] ‘사교육 경감대책’의 내용 (교육부, 2023.6.26발표)

□ **공교육 내 입시컨설팅 강화** 강화

○ (공공컨설팅) 공교육으로 입시 컨설팅 수요가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교사 중심\* 무료 대입상담 및 고교-대학 정보공유 확대  
\*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23. 372명), 시도교육청별 진로진학센터 등

○ (대입정보) 대입정보포털(adiga.kr)을 통해 대학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대학별 대입전형 평가기준·평균 합격선 등 선발결과 공개

-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 개편<sup>24</sup>~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공공의 영역인 지자체와 학교에서 사교육 업체의 연사를 초빙해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2023년 1월~8월 중 지자체와 학교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해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8월 1일~21일 동안 인터넷을 통해 지자체/학교 홈페이지, 보도자료 기사 등 표면적으로 홍보된 건을 찾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 지자체 사례는 54건, 학교 사례는 9건으로, 총 63건의 사례가 조사되었습니다.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지만, 사교육이 경감되기는커녕 오히려 공공의 영역에서는 사교육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던 것입니다. 지자체와 학교 입시설명회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관행은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로 언급된 공교육 내 입시컨설팅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표1] 사교육 기관의 연사를 초빙한 지자체와 학교의 입시 설명회

| 날짜      | 지역 (시도) |      | 주최                                                | 장소                |
|---------|---------|------|---------------------------------------------------|-------------------|
| 02월 19일 | 경북      | 포항시  | 포항시                                               | 포항시청 대강홀          |
| 02월 21일 | 서울      | 강동구  | 강동구                                               |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 대강의실 |
| 02월 22일 | 서울      | 양천구  | 양천구                                               | 해누리타운 해누리홀        |
| 03월 04일 | 경기      | 양주시  | 양주시                                               |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    |
| 03월 25일 | 전북      | 군산시  | 군산시                                               | 군산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    |
| 03월 26일 | 서울      | 송파구  | 송파구                                               | 송파구청 대강당          |
| 03월 26일 | 경북      | 안동   | 안동시, 안동시장학회,<br>퇴계학당                              |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홀      |
| 03월 28일 | 강원      | 횡성   | 횡성군                                               | 횡성문화원 1층 발표회장     |
| 03월 28일 | 경북      | 안동   | 안동경안고                                             | 경안관               |
| 03월 29일 | 서울      | 용산구  | 용산구                                               | 용산구종합행정타운         |
| 03월 31일 | 제주      | 제주시  | 대기고                                               | 대기고등학교 체육관        |
| 04월 05일 | 서울      | 도봉구  | 도봉구                                               | 도봉구청 16층 자운봉홀     |
| 04월 22일 | 대구      | 북구   | 대구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 북구청 대회의실          |
| 04월 29일 | 전남      | 순천시  | 순천시                                               | 순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     |
| 05월 03일 | 경남      | 창원   | 경상고                                               | 경상고등학교 도서관        |
| 05월 09일 | 서울      | 구로구  | 경인고                                               | 교내                |
| 05월 11일 | 서울      | 구로구  | 구일고                                               | 교내                |
| 05월 17일 | 대전      | 중구   | 중구                                                | 중구 문화원 뿌리홀 1층     |
| 05월 18일 | 서울      | 구로구  | 오류고                                               | 교내                |
| 05월 25일 | 서울      | 구로구  | 우신고                                               | 교내                |
| 06월 03일 | 강원      | 동해시  | 동해시                                               | 동해시 청소년센터 공연장     |
| 06월 08일 | 부산      | 금정구  | 금정구                                               | 금정구청 1층 대강당       |
| 06월 10일 | 서울      | 동작구  | 동작구                                               | 동작구청 대강당          |
| 06월 10일 | 대구      | 북구   |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 북구청소년회관 아트홀       |
| 06월 10일 | 경기      | 양주시  | 양주시                                               |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    |
| 06월 12일 | 제주      | 제주시  | 대기고                                               | 대기고등학교 체육관        |
| 06월 15일 | 경북      | 구미   | 구미여고                                              | 시청각실              |
| 06월 21일 | 서울      | 양천구  | 양천구                                               | 해누리타운 2층 해누리홀     |
| 06월 24일 | 대구      | 남구   | 남구                                                | 남구청 4층 대회의실       |
| 07월 07일 | 세종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학교박청소년<br>지원센터 꿈드림,<br>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br>진로교육원 | 진로교육원 1층 시청각실     |
| 07월 10일 | 서울      | -    | 강남구청                                              | 강남인강 유튜브          |
| 07월 11일 | 서울      | -    | 강남구청                                              | 강남인강 유튜브          |
| 07월 11일 | 서울      | 강북구  | 강북구                                               | 강북구청 대강당          |
| 07월 13일 | 서울      | -    | 강남구청                                              | 강남인강 유튜브          |
| 07월 14일 | 서울      | -    | 강남구청                                              | 강남인강 유튜브          |
| 07월 14일 | 서울      | 서대문구 | 서대문 진로진학지원센터                                      |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      |
| 07월 14일 | 서울      | 서초구  | 서초구 교육지원센터                                        | 서초구립 양재도서관 양재홀 3층 |
| 07월 14일 | 서울      | 은평구  | 은평구,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                                   | 선정고등학교 대강당        |
| 07월 15일 | 서울      | -    | 서울런                                               | 서울런 유튜브           |
| 07월 15일 | 서울      | -    | 서울런                                               | 서울런 유튜브           |
| 07월 17일 | 서울      | -    | 강남구청                                              | 강남인강 유튜브          |
| 07월 17일 | 대구      | 경산시  | 경산시                                               | 문명고등학교            |
| 07월 18일 | 서울      | -    | 강남구청                                              | 강남인강 유튜브          |
| 07월 18일 | 서울      | 서초구  | 서초구                                               | 서초문화예술회관 르네상스홀    |
| 07월 18일 | 부산      | 수영구  | 수영구                                               | 수영구청 2층 구민홀       |
| 07월 19일 | 서울      | -    | 강남구청                                              | 강남인강 유튜브          |
| 07월 20일 | 서울      | 강서구  | 강서구                                               | 강서아트리움 2층 아리홀     |
| 07월 20일 | 경기      | 의왕시  | 의왕시                                               | 의왕시평생학습관 3층 공연장   |
| 07월 22일 | 경기      | 김포시  | 김포시청소년재단<br>진로체험센터                                | 김포시 평생학습관 대강당     |

|         |    |      |                             |                         |
|---------|----|------|-----------------------------|-------------------------|
| 07월 22일 | 대전 | 대덕구  | 대덕구, 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 대전진학지도협의회 | 대덕구 청소년 어울림센터 강당        |
| 07월 22일 | 서울 | 영등포구 | 영등포구                        |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           |
| 07월 23일 | 경기 | 안성시  | 안성시                         | 안성맞춤 아트홀 소공연장           |
| 07월 23일 | 경기 | 안성시  | 안성시                         | 안성맞춤 아트홀 소공연장           |
| 07월 25일 | 서울 | 양천구  | 양천구                         | 양천문화회관 대극장              |
| 07월 29일 | 서울 | 종로구  | 종로구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조병두 국제홀 |
| 08월 02일 | 경기 | 과천시  | 과천시, 진로체험센터                 | 청소년수련관                  |
| 08월 04일 | 서울 | 구로구  | 구로구                         | 구로구민회관                  |
| 08월 05일 | 경기 | 동두천  | 동두천                         | 평생교육원                   |
| 08월 06일 | 경기 | 동두천  | 동두천                         | 평생교육원                   |
| 08월 28일 | 광주 | 남구   | 남구                          | 남구청 8층 대회의실             |
| 08월 29일 | 서울 | 도봉구  | 도봉구                         | 도봉구청 16층 자운봉홀           |
| 08월 29일 | 서울 | 도봉구  | 도봉구                         | 도봉구청 16층 자운봉홀           |
| 09월 02일 | 경기 | 오산   | 오산                          | 오산시청 3층 대회의실            |

지자체와 학교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교육걱정이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지자체와 학교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입시 설명회 건을 조사한 결과, 2019년에는 지자체에서 102건, 학교에서 54건이 이루어졌고, 2020년에는 지자체에서 24건, 학교에서 29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2020.8.13. 기준). 전수조사가 아닌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만 조사했음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2]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지자체의 입시 설명회 홍보물과 학교 내 입시 설명회 장면



\*사진출처: (왼쪽)동작구청 (오른쪽)DWBNEWS(장애인복지뉴스)

학생들에게 입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사교육 업체의 연사를 초빙하는 일은 오히려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홍보를 대행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예산으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고, 학교에서는 진로진학 예산을 통해 연사를 섭외하거나, 심지어 지자체 차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입시 설명회’라는 명목으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여 학교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운영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공 영역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국민의 혈세로 사교육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교육의 유입 창구를 열어줌으로써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사교육 조장 행위입니다.

연사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필요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고 답변한 기관도 있었으나, 2019년 사교육걱정이 조사했을 때 설명회에서 연사가 속한 사교육 업체를 홍보하거나, 효과적인 입시 대비를 위해 선행학습이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사교육으로 유도하는 미끼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사교육 업체 연사가 공공 영역에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것은 사교육 조장을 위한 자리를 깔아주는 일입니다.

또한 지역 간 편차도 심했습니다. 지역별로 입시 설명회 개최 건수를 비교해 살펴보면 서울 32건, 경기 10건, 대구 4건, 부산 2건, 대전 1건, 강원 2건, 세종 1건, 광주 1건, 대구 4건, 전북 1건, 전남 1건, 경북 4건이었습니다. 사교육 인프라가 발달한 수도권에서 더욱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사교육걱정은 그동안 이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과 2019년 ‘지자체나 시도교육청이 개최하는 입시 설명회에 사교육 강사초빙을 지양하고, 공교육 교사나 대학교육협의회 강사를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대교협의 대표강사를 활용하여 입학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문서에서는 ‘학부모 총회에서 사교육 관계자를 초청하여 입시 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림3]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시 설명회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

| (2016년 6월)                                                                                                                                                                                                                                                                                                                                                                                                                                                                                                                                                                                                                                                                                                                                                                                                                                                                                                                                                                                                                                                                                                               | (2019년 12월)                                                                                                                                                                                                                                                                                                                                                                                                                                                                                                                                                                                                                                                                                                                                                                                                                                                                                                                                                                                                                                                                                                                                                                                                                                                                                                                        |
|--------------------------------------------------------------------------------------------------------------------------------------------------------------------------------------------------------------------------------------------------------------------------------------------------------------------------------------------------------------------------------------------------------------------------------------------------------------------------------------------------------------------------------------------------------------------------------------------------------------------------------------------------------------------------------------------------------------------------------------------------------------------------------------------------------------------------------------------------------------------------------------------------------------------------------------------------------------------------------------------------------------------------------------------------------------------------------------------------------------------------|------------------------------------------------------------------------------------------------------------------------------------------------------------------------------------------------------------------------------------------------------------------------------------------------------------------------------------------------------------------------------------------------------------------------------------------------------------------------------------------------------------------------------------------------------------------------------------------------------------------------------------------------------------------------------------------------------------------------------------------------------------------------------------------------------------------------------------------------------------------------------------------------------------------------------------------------------------------------------------------------------------------------------------------------------------------------------------------------------------------------------------------------------------------------------------------------------------------------------------------------------------------------------------------------------------------------------------|
| <div data-bbox="300 1420 699 1464">  <div>교 육 부</div>  </div> <div data-bbox="300 1473 699 1523"> <p>수신 수신자 참조<br/>(경유)<br/>제목 대학 입학설명회 개최 및 운영 안내</p> </div> <div data-bbox="300 1532 699 1576"> <p>1.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사교육기관의 강사를 초빙하여 대학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 학부모에게 사교육기관 이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p> </div> <div data-bbox="300 1585 699 1653"> <p>2. 이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 주관 대학 입학설명회에 <b>사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지양하고</b>, 대학 입시지도 경합이 많은 <b>공교육기관의 교사 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대표강사를 활용하여</b> 대학 입학설명회를 개최하실 것을 권장합니다.</p> </div> <div data-bbox="300 1653 699 1680"> <p>※ 대학 입학설명회 준비 단계부터 시도교육청(또는 대교협)과 일정 및 강사 지원 인원 등 사전협의 필요</p> </div> <div data-bbox="300 1688 699 1720"> <p>3.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대교협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대학 입학설명회 강사 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div> <div data-bbox="300 1760 563 1778"> <p>붙임 대학 입학설명회 강사 지원 관련 연락처 1부, 끝.</p> </div> <div data-bbox="300 1818 590 1863"> <p>교 육 부 장 관<br/>수신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p> </div> | <div data-bbox="893 1420 1292 1464">  <div>교 육 부</div>  </div> <div data-bbox="893 1473 1292 1523"> <p>수신 수신자 참조<br/>(경유)<br/>제목 대학 입학설명회 개최 및 운영 안내</p> </div> <div data-bbox="893 1532 1292 1576"> <p>1.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원 등 사교육기관 소속의 강사를 초빙하여 대입설명회를 개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대입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사교육기관 이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p> </div> <div data-bbox="893 1585 1292 1653"> <p>2.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입설명회에 <b>사교육기관 소속 강사를 초빙하는 것을 지양하고</b>, 대학 입시지도 경합이 많은 <b>공교육기관의 교사 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대표강사를 활용하여</b> 대입설명회를 개최하실 것을 권장합니다.</p> </div> <div data-bbox="893 1653 1292 1680"> <p>※ 대입설명회 준비단계부터 교육청(또는 대교협)과 일정 및 강사지원 인원 등 사전협의 필요</p> </div> <div data-bbox="893 1688 1292 1720"> <p>3. 또한, 현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사교육기관의 강사를 이미 초빙한 경우이라도 해당 사교육기관에서 학부모에게 입시컨설팅 수강을 권유하거나, 홍보하는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p> </div> <div data-bbox="893 1729 1292 1756"> <p>4.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대교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입설명회 강사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div> <div data-bbox="893 1760 1208 1778"> <p>붙임 대학 입학설명회 강사 지원 관련 유관기관 연락처 1부, 끝.</p> </div> <div data-bbox="893 1818 1177 1863"> <p>교 육 부 장 관<br/>수신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p> </div> |



[그림4]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학교’ 입시 설명회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 (2015년)

|                                                                                                                                                                                                                                                                                                                                                                                                                                                                                                                                                                                                                                                                                                                                                                                                                                                              |                                                                                                                                                                                                                                                                                                                                                                                                                                                                                                                               |
|--------------------------------------------------------------------------------------------------------------------------------------------------------------------------------------------------------------------------------------------------------------------------------------------------------------------------------------------------------------------------------------------------------------------------------------------------------------------------------------------------------------------------------------------------------------------------------------------------------------------------------------------------------------------------------------------------------------------------------------------------------------------------------------------------------------------------------------------------------------|-------------------------------------------------------------------------------------------------------------------------------------------------------------------------------------------------------------------------------------------------------------------------------------------------------------------------------------------------------------------------------------------------------------------------------------------------------------------------------------------------------------------------------|
| <div style="text-align: center;">  <b>교육부</b><br/> <small>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치연재</small> </div> <p>수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경유)</p> <p>제목 "공교육기관에서의 사교육기관 강사 초빙 대입정보 설명회 개최" 관련 질의 회신</p> <p>1. 관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5-0317호 "사교육 업체 불려 입시설명회를 여는 학교들의 행태에 대한 질의서"</p> <p>2. 위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공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대입정보 설명회에 사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하는 것을 지양하고, 시도교육청 관내 대입담당 교사 또는 대교협 대표강사를 활용한 대입정보 설명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p> <p>○ 요청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교육기관 실시 대입정보 설명회에 사교육기관 강사 초빙 지양</li> <li>- 관내 대입담당 교사 또는 대교협 대표강사를 활용한 대입정보 설명회 운영</li> <li>- 관내 고등학교의 수요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대입정보 설명회 추진. 끝.</li> </ul> <div style="text-align: right;"> <b>교육부 장관</b><br/>  </div> |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2px solid blue; padding: 5px;"> <b>사교육 관계자 초청 입시설명회 개선 계획</b> </div> <p><b>1 사안 파악 및 관계자 지도 협의</b></p> <p><input type="checkbox"/> 대안반석교의 학부모총회에서 사교육업자 초청 입시 설명회 경위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로부터 2015. 3. 13.(금) 제보 입수</li> <li>- 담당 장학관 해당 고등학교 방문[2015. 3. 16.(월)] 대책 협의</li> <li>- 해당 고등학교가 입시설명회 자진 철회[2015. 3. 16.(월)]</li> </ul>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제점) 학부모총회에서 사교육 관계자를 초청하여 입시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음</p> |
|--------------------------------------------------------------------------------------------------------------------------------------------------------------------------------------------------------------------------------------------------------------------------------------------------------------------------------------------------------------------------------------------------------------------------------------------------------------------------------------------------------------------------------------------------------------------------------------------------------------------------------------------------------------------------------------------------------------------------------------------------------------------------------------------------------------------------------------------------------------|-------------------------------------------------------------------------------------------------------------------------------------------------------------------------------------------------------------------------------------------------------------------------------------------------------------------------------------------------------------------------------------------------------------------------------------------------------------------------------------------------------------------------------|

그러나 공공 영역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입시 설명회의 수요를 흡수해야 하는 대교협 상담교사단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대교협 상담교사단 담당자에게 유선 문의 결과, 2020년까지 운영되던 대교협 대표 강사단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372명의 상담교사단은 지자체와 학교의 입시 설명회 강사로 파견되지 않고 학생들을 전화·온라인으로 상담해 주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담교사단으로 활동하던 교사 중 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선별해 일정 연수 과정을 거쳐 입시 설명회에 연사로 출강할 인력풀을 공급했습니다. 현재는 공식적으로 별도 마련된 강사단이 없어 학교나 지자체에서 공공 영역의 연사를 통해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개별적으로 교육청에 문의하거나 개인 인력풀 내에서 연사를 섭외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접근이 어렵고 수요자의 요구나 업무의 편의상 접근하기 쉬운 사교육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적 목적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지자체와 학교가 오히려 사교육 강사를 초빙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사교육 카르텔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지자체와 학교에 파고드는 사교육 시장을 방관하지 말고 조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교육 연사 초빙 입시 설명회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사교육걱정이 조사한 사례는 일부이기에 교육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공공 영역의 입시 설명회 연사 공급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와 학교에서 사교육 연사가 아닌 공공 영역의 입시 설명회 연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자체와 학교에서 손쉽게 입시 설명회 연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대교협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대입강사단 인력풀을 구축하여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입

시 대비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공교육 내 입시컨설팅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이라고 발표한 ‘공교육 내 입시컨설팅 강화’ 중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은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입니다. 기존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대입 당사자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의 부담 속에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을 통해 충분한 입시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입시경쟁 교육의 구조적 문제 탓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단속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치열한 대입 경쟁과 입시정보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을 경감시키고 공공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학교 깊게 뿌리내린 사교육 연사 초빙 입시 설명회를 단속하고, 사교육 연사 없이도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공공 차원의 입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사교육 연사 초빙 지자체/학교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강력한 금지 조치를 내려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십시오
2. 대교협은 공공 영역의 입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대표강사단 인력풀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학교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강사단 지원 체계와 이용 지침을 마련하십시오
3. 교육부는 기존 시행되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2023. 8.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이현우(02-797-4044/내선번호 502)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신소영 (02-797-4044/내선번호 501)